

대만 등 성장사업 매출 31% 상승 쿠팡, 3분기 실적 ‘사상최대’ 기록

3분기 영업이익 2245억 51% 급증
쿠팡플레이 ‘독점 콘텐츠’ 라인 효과
쿠팡이츠 결제추정액 86% 폭증



coupang eats

쿠팡이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 소비자를 서비스에 묶는 라인 효과로 로켓 생태계를 강화한 전략이 통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Inc가 5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3분기 매출은 12조 8455억원(92억6700만달러), 영업이익은 2245억원(1억62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엔 대만·파페치·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 성장사업(Developing Offerings) 부문이 있었다. 성장사업 부문의 3분기 매출은 원화 환산 기준 1조7839억원(12억87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다. 쿠팡 거탑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세 자리 수가 넘는 대만에서의 급격한 성장과 쿠팡이츠의 견실한 성

장세”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쿠팡이 이끄는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는 최근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쿠팡플레이의 2025년 10월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83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OTT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쿠팡플레이의 MAU는 2023년 8월 633만명, 2024년 8월 733만명, 2025년 8월 773만명으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특히 올해 EPL, NBA 등 인기 해외 스포츠 리그 중계권을 확보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적한 LAFC와 중계 계약을 맺는 등, 와우 멤버십 회원을 위한 ‘독점 콘텐츠’ 전략이 라인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을 제칠 기

세다. 지난 7월 쿠팡이츠의 결제추정금액은 85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3% 폭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핵심 시장인 서울에서는 이미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남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 8월 서울에서 2113억원의 매출을 올려 1605억원에 그친 배민을 앞질렀다. ‘와우 회원 무료 배달’ 혜택을 통한 라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장은 막대한 투자를 동반한다. 쿠팡의 3분기 성장사업 부문 조정 예비타(EBITDA) 손실은 4047억원(2억9200만달러)으로, 대만 시장 공략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34.6% 늘었다. 쿠팡은 올해 성장사업 부문에서 최대 9억5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고객 지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확대되는 구조는 저희가 오랜 기간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투자해온 결과”라며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견고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여천NCC

석화업계 구조조정 ‘지지부진’ ‘연말 골든타임’ 압박에 속도 내나

산업부, 내달까지 자구책 제출해야
롯데·HD현대케미칼 재편 진행중
가격상장·세부조건 등 시간 걸릴 듯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골든타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업계의 실제 감축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 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지만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지부진해 업계 진정성에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가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주요 석유화학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자구책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국내 전체 나프타분해시설(NCC) 용량 1470만톤 중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을 기업들이 자율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각 사 이 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충남 대산산업단에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그나마 가장 빠르게 재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격 안정과 세부 조건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마무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남 여수산업단에서는 LG화학이 GS칼텍스 측에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울산산단의 에스오일·대한유화·SK지오센트릭은 지난달 외부 컨설팅 기관에 구조재편 전략 자문을 의뢰하기로 자율협약을 체결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업계의 대응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실질적인 감축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재편 흐름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골든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얼마나 줄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며 “제출 이후에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내부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실제 실행 단계로 옮기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면세점 입찰’ 신세계 등 국내·외서 주시

인천공항, 이르면 내달 입찰공고

신라·신세계 면세 사업권 반납에
DF1·DF2 자리 신규사업자 선정

신세계·롯데·현대 등 참여 주목
中 CDFG·스위스 아볼타 등 고심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빈 인천공항 면세점 공간을 두고 국내 주요 면세점이 참전하는 모습.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DF1 면세 사업권을 반납한 데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DF2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인천공항은 이르면 12월 초 두 구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낼 전망이다. 업계에선 사업권 입찰을 두고 쟁점이 복잡해졌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내년 4월 28일과 3월 17일 철수할 예정이다. 양사가 사업 기간 만료 전 반납으로 부담할 위약금은 각각 19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철수는 면세업계 전반의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과 맥을 같이 한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 직후인 이달 6일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도 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했다. 현대면세점은 올해 무역센터점 규모를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축소 운영하는가 하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초 파이공과 거래 비중을 크게 줄이며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두 기업의 철수 결정은 면세업계가 터닝포인트를 맞은 시점과 맞물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기폭제가 되면서 업계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면세점협

회에 따르면 올해 9월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은 101만2368명으로 집계돼 5년 8개월 만에 100만 명 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9월 84만9516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해 19.2% 증가한 수치다.

시장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다시 빈 인천공항을 노리는 경쟁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합리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임차료가 제시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2년 당시처럼 높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입찰을 앞두고 신세계면세점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DF2 구역 철수로 신세계면세점은 명동본점과 DF4(패션) 구역만 남아 사업 기반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금번 영업정지 결정으로 임차료 부담이 완화돼 중장기적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DF2 구역 매출(2024년 4039억원)이 전체의 20.6%에 달해 외형 축소가 불가피하고, 명동점과 DF4 구역만 남게 되어 사업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약금 납부로 부채비율이 227.9%에서 552.3%로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재무 부담을 경고했다.

반면 지난 입찰에서 탈락했던 롯데면세점은 낮아진 임대료로 공항에 재입성할 기회를 맞았다. 현대면세점 역시 동대문점을 폐쇄하는 등 효율화에 나선 상황이라, 업계 2~3위권 도약을 위한 승부수로 이번 입찰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신세계는 재입찰 시 감점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 CDFG, 스위스 아볼타 등 글로벌 사업자도 입찰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입찰은 정성평가 싸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반납한 신라·신세계는 물론 과거 철수 이력이 있는 롯데도 자유롭지 못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철수 이력이 없는 현대나 해외 사업자에게 의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종욱 기자

“유망 창업기업 매년 6000곳 이상 육성”

》 1면 ‘중소 3자 승계...’서 계속

한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리는 등 ‘모두의 창업’ 시대를 열겠다”면서 “청년창업가 1000개사, TIPS 선정기업 1200개사 등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개사 이상 육성하겠다. 민간 자금의 벤처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연금·퇴직연금 등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금융권과 국민들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은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절반은 틱스(TIPS) 방식의 R&D로 추진해 벤처캐피탈(VC)이 먼

저 투자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성장단계별로 매칭해 지원한다.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과 유사한 ‘한국형 STTR 제도’를 신설하고 2000억원을 배정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돕는다.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전환(AI)도 적극 지원한다.

한 장관은 “엔비디아를 통해 한국이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은 스타트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제조데이터가 필요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협업을 필수다. 글로벌로 가기위해선 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